

기독교지도자협 설립 47주년 기념예배

세계 평화의 날 제정 등 한국교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해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상임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7월 1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설립 47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가치 및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기원전 감동교회)의 사회로 법안이사 최광열 장로 기도, 박재대 최경열 교수의 특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진호 목사(예장통합 중흥총회장, 명성교회 원로)는 장 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47년을 이끌어 오신네 지도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도자협의회 회원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이사장 한창영 목사의 47년의 길을 걸어온 협의회의 연례보고, 법안이사장 김동훈 목사(합동중앙교회)의 기념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현 중무관의 격려사, 상임고문 사기형 목사(합동중앙교회)의 축사, 조지현 목사(안복지협 대표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도 갖고 국가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협의의 발



를 이끌어 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이사장 한창영 목사의 47년의 길을 걸어온 협의회의 연례보고, 법안이사장 김동훈 목사(합동중앙교회)의 기념사, 문화체육관광부 박종현 중무관의 격려사, 상임고문 사기형 목사(합동중앙교회)의 축사, 조지현 목사(안복지협 대표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도 갖고 국가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협의의 발

전과 기독교문화운동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예배는 상임이사장 김탁기 목사(그교회 재단이사장)의 광고와 최병두 목사(법안이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1975년 7월 1일 한성직·강신명·지원상·신신목 목사, 김진호·최태섭 장로 등에 의해 창립한 동 협의회는 통일전선가 발간, 세계 평화의 날 제정, 통일운동본부 설립 등 한국교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표회장인 신신목 목사는 지난 9월 18일 소천했다.

미래목회포럼 2022 리더십컨퍼런스 개최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 나아갈 길' 주제로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팜플라리스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리더십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재도약의 기회'라는 주제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교회가 성경적 기독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표 이상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다. 시대는 변해도 우리 믿음의 근간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에서도 사랑과 복음은 불변이다. 우리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며, "오늘이 컨퍼런스가 한국교회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에 나선 국제비밀학회 한국교회

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한국교회 재도약의 기회이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다. 시대는 변해도 우리 믿음의 근간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에서도 사랑과 복음은 불변이다. 우리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며, "오늘이 컨퍼런스가 한국교회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성장과 이벤트, 자선잔담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중심의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영 목사(세종장로회)는 자신이 비전 캔바스를 개척한 것을 소개하며 "일상의 선교화"를 강조했다. 황 목사는 "지금엔 선교의 영역이 제한적이고 고정된 선교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부화 확산되는 시대"라며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교회가 새우잡기 어려운 공간과 상황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회, 6.25 72주년 기념성회 개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뜨겁게 기도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김용희 목사)가 주관한 기념성회가 인천 아바다교회(담임 박현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성회는 인천시 남동구 자연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72주년 기념성회로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를 비롯해 이진 목사, 이상영 목사, 송병호 목사, 박시환 목사, 이광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주강사 김용희 목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자"며(눅 18:35-43)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예수께서 버려진 사자"라고 말했다. 공생에 기간 종적역을 함께 가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머



뒤로 서서 평안을 내내냈다. 우리도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자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바다교회 박현호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영·육 간에 지지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이루어진 해외 선교와 지역 전도가 회복

되며, 각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성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은 성회위원장 이광호 목사(아바다교회)는 "이번 성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기도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영풍회는 한국 기독교 부흥단 제 44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건전한 부흥 단체로 각종 성회와 집회를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있다.

오산로교회(장기명 목사)도 성회성경기도, 성회성경기도, 전후회성경기도 등 성회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연수원, 해외성회, 선교사(대외) 등을 계획 중이다.

한교총, '키어 행사 허용 깊은 유감'

서울시 광장허가 취소 강력히 요구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지난 7월 4일(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키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용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서울시가 오는 7월 16일(토) 서울광장에서 키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종 허용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라며, "서울시는 내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동상에서 키어 행사를 주관부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미래추진체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인권을 수정 승인함으로써 결국 다수 시민과 한국교회에 그 불만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온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키어추진체조직위원회가 단체 요청한 5일간 10월 16일 하루를 축소하며, 실제 고대노력과 청소년 보호를 금치된 유해 음란물

을 판매·전시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달고, 이후 조약을 어기면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위에게 고지했다"며, "이는 종파의 방벽에서 진입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조지위가 신청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서울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사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서울시의 광장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6.25 상기 기념예배

"믿음으로 하나되어 승리의 길 걸어가자"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연호 목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토) 일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소재 푸른동산교회 회 연수원에서 협의회장 및 총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상기기도회 및 총무단 조적예배를 드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1부 기구예배에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사회로 총무 박영민 목사의 기도, 사회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박연호 목사의 막 2-43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연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은 선민 한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625 7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 세계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



셨다"며, "우리는 환난과 곤고, 기근과 압박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 고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강하게 불쌍히 주시고 지혜롭게 주셔서 그 사랑을 보충해 주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어 "우리는 확고한 기쁨이 있

다. 우리 협의의 소속 신민들은 구원이다. 이 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린들 오와 부름받고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고 전했다. 이어 합동보수 총회장 김태호 목사의 축사로 마무리되었다.

계속해서 오우 김갑진 박사의 625전경과 순교자' 제목 중무단 조적 예배식 후 저녁 일일기도회는 상임회장 김진기 목사의 사회로 '전경과 슬픔,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아베총회 박영민 목사, 연안신학교 안상두 목사, 구구사총회 정순경 목사, 합동총회 유영석 목사, 교단연합 박승주 목사, 연안도 입신진 목사, 들로스총회 박재하 목사, 보수총회 김태호 목사, 한기복서기 박병국 목사, 세계선교총회 양은총 목사가 뜨겁게 릴레이기도를 했다.

한교총,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위해 1억원 지원

헝가리개교회회복사단에 전달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호 목사, 이하 한교총)는 6월 30일(목)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교회 2층 강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긴급구호 성금 1억원을 헝가리개교회회복사단(HKCA)에 전달했다.

한기리 한자와 연립인으로 연결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 김태호 목사(한교총 대표회장)는 "우크라이나 국 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복귀와 재건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일상회복과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도했다"고 말했다.

한기리개교회회복사단 크로티 차베르 회장은 "한기리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개



교회들과 교회의 손길을 바라는 수 많은 난민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키리키리) 지역의 개교회회를 대표하는 신도리 파비안 주교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연대와 난민구호 헌금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한 글로 쓴 팻말을 들고 작은 사전을 보냈다.

한기리개교회회복사단은 이번 성금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개교회회복회 가족과 교인들, 한기리와 우크라이나 국내에 귀신해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장기기증 운동본부, 도너패밀리 상담가 양성한다

신규 도너패밀리의 따뜻한 위로자 역할 수행

(재)장기기증가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2022년 서울특별시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1일 서울 지하철 종로역에서 내에 있는 도너패밀리 사립방에서 가족과 이별을 먼저 경험한 도너패밀리들을 대상으로 '도너패밀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도너패밀리는 2013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으로, 이번 교육프로그램에는 그동안 본부가 진행한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상담과 회계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렸다.

본부는 대년간 진행해온 도너패밀리에

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이 사별이라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이후, 오랜 시간 기증에 대한 상담과 회계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렸다.

이제 비슷한 아픔을 먼저 경험한 도너패밀리를 상담가로 양성하여 신규 도너패밀리들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따뜻한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너패밀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강해 주었다.

도너패밀리가 교육프로그램은 총 8회차로, 1주차 자비분서, 2주차 감동교정, 3주차 예도과정, 4-5주차 의사소통 기법, 6주차 장기기증 유가족의 감동받은 분류, 7주차 이해관계인도모임, 8주차 슈퍼비저 Q&A를 주제로 이루어진다.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김경남 목사)와 나라사랑국민연합회(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공동으로 6.25 72주년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23일(목) 오후에 서울 종로구

소재 여천도 대강당에서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란 보훈은 공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며 추모하는 것'이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1부세나, 2부예배, 3부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세나에는 민족복음 사무총장 김영광 목사의 사회로 권정희 목사(전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심재진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명예회장)가 6.25 72주년을 상기하며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2부 예배에서 김재현 목사가 대외기도하고 박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김지혜 목사(기여회 대표회장)의 특송, 김경남 목사(한국교회 총회장)가 찬상 17:47 말씀을 본문으로 '6.25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생명의 말씀



김상욱 목사

· 교단 중경총회장
·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청주중앙신복고교교회 회회장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 가운데 오늘 읍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읍은 읍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지평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읍이 이처럼 그 생애에서 하느님의 자리가 되고 하느님의 정전을 받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읍의 삶은 항상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느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읍을 어떤 역경과 아픔을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읍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느님이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읍은 하느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읍의 어떤 면이 이처럼 칭찬받게 되었을까요?

1) 온전한 사람이었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온전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아예 물들지 아니했다, 거저 아니, 외설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우선한 사람 읍

(읍 1:1-5)

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린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어린이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마음에 항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읍은 진실한 사람이며 거짓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은 하느님을 만납니다.

3.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으로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씀인데 읍이 그렇게 된 것은 이전에 이미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그 하느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말씀이 무엇에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후로 하느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하느님의 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가 그처럼 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갔던 것이요 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하느님과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게 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읍은 이러한 신앙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보람을 얻고 그 하느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2. 읍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읍은 첫째 물질의 축복으로는 양이 칠천 마리로 낙타가 삼천마리로 소가 오백 마리로 양이 네 마리가 오백마리입니다. 이 말이나 말은 것입니까? 이것을 판단하고 볼 때는 대만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읍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았었습니다. 읍이 42살과 17살에 "그 후에 읍이 백사십년을 살며 아들들과 자녀 사대를 보았고 읍이 늙어 나이가 자서 죽었다"고 시편에는 후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에는 후로 140년을 살았으며 시편 이전에 100년만 살았다고 해도 240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건강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라 오매 살기를 바랍니다.

3. 읍은 기성에서 건강함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크고 병들어 있으면 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읍은 그런데 관직이 읍을 오직 자녀들이 하느님 앞에 올 때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느님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혼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들이 있느냐?" 하면 "저기요 저기 멀리 있어요"라고 대답하는데 멀리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멀리 있으면 주일만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부신에 있지도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4. 읍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읍을 잘 아는 하느님은 사탄에게 읍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내려와서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길로 종들을 죽였으며 읍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종들을 살려 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내려와서 읍을 빼앗고 읍이 자녀들이 그들의 만 아이들의 집에서 읍을 만으며 포도밭을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위가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고 그 이들을 위에 무자비로 그들이 죽었을 때에 과연 누가 그 하느님을 믿고 찬양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읍은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느님을 행하여 살다가 하느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읍은 믿음으로 믿었으며 그 어떤 상황이든 하느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읍이 물질의 관심을 두고 자기 권위와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읍은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은 그런데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수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예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좁은 삶,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가지고 하느님을 이룬다 못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교만한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계책과 핏발에도 굴하지 않는 읍은 하느님께 인정받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 같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느님을 행한 것처럼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느님을 행하였거 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하느님을 이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느님을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하느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 하느님이 이기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기시도록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불의 함이 없습니다. 읍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지만 끝에 가서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이기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읍은 하느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한 믿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은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느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열매들의 신앙을 본 받아서 오직 하느님을 우선하고 그 하느님만으로 기뻐하고 읍은 하느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한동대 총동문회 발전기금



한동 대학교(총장 최도성) 국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가 지난 6월 24일(금)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숙희 최고경영자과정 원장, 유종구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발전기금 기탁을 12번째 아이고였다.

설교와 목회신학 주제 포럼



(사)국제목회교회 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회회장 임재준 목사,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와 위아르사사(사)한국교회총연합회(회장 박조준 목사, 이사장 임우성 목사)는 '박조준 목사의 설교와 목회신학'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8일(일) 서울 노랑진 CTS아트홀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YMCA 김상환 신임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의 지난 6월 30일(목)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연맹 이사회의에서 김상환(48)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창립한 1914년 이후 첫 여성 이사장이자, 김 이사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운동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경대로 묵화하기' 세미나



하이미션(대표 윤인규 목사)은 오는 7월 27일(수)부터 8월 11일(목)까지 제3회 '성경대로 묵화하기' 세미나를 연다. '묵화'를 주제로 묵언 기도가 강사로 나선다. 윤목사는 '성경대로 묵화하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zoom)으로 진행된다.

노명

한국교회연문회

플뿌리 민주주의의 위한다는 빌미로 자유대한민국 뿌리까지 뽑으려는가?

우리나라의 기존 행정조직을 뒤집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빌미로 읍과 노년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이 공동 발의한(김경태,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용, 박원주, 송재호, 신정호, 양기태, 양정호, 이우진, 이용선, 이희식, 이형석, 임호선, 주원철, 진성준, 최영, 황영) '국회자치 기본법'이 그것이다.

법안제안 이유를 보면 '주민 자치 활성화

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천제 등의 근간을 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플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 체계계를 마비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첫째는 이 조직이 전국의 작은 단위 행정조직인 340개의 읍·면·동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둔 집단이나 세력이 들어가서

이들 민중노조나 전교조 혹은 좌파 이념으로 혼란된 조직 운영을 행하면서 좌파 미움을 당할 수 있는 불안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정세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막강한 권력으로 기존의 행정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모든 신장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통제기반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등이 모여서 소환하면 되고 협조하게 되어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세 번째는 이들은 엄청난 예산을 누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결의와 인력, 업무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거기다 이 조직은 기부금과 수탁사업도 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의 매각, 재산의 무상대여와 사용,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 세 공되어야 한다.

넷째는 차별금지제를 부정하고 있어 지역 교회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동성애, 성매매 등)와 종교(천주교, 이단, 이슬람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정치적 사정(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지 집착하게 마련이다. 주민자치와 플뿌리 민주주의를 빌미로 '주민자치'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잃고, 이들이 하루하루의 것 같으면서도 대대 조직으로 움직일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하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기행)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을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 (현) 흥열 목사 수성장
- 2007. 10. 3 이천교회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읍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 다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원영 목사)는 지난 6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사랑교회(최규임 전도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교회 총무 이광호 목사(장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유원영 목사(종교개혁교회)가 기도하고,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이산순례교회)가 요일 5:1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교회장 유원영 목



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마친 후 장사랑교회에서 정성철 준비한 기념품과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세계성막복음센터에서 아유회 가져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6월 25일(토) 오전 10시 평택시 진위면에 소재한 세계성막복음센터에서 모여 성막의 구조와 모형 체험 시간을 갖고 이동하여 점심 식사 후, 읍내시 양지면에 위치한 기독교 순교자기념관에서 아유회를 열었다.

이날 예배는 지교회 총무 장진화 목사(엘 사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직전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지교회장 이인복 목사(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 목사는 출 25:1-9 말씀을 본문으로 '성막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막을 건설하는 건축 자재의 나열을 보면 하나님의 순으로 배열되었고, 성막에서도 제일 중요한 바깥부터 기록됨과 대위기의 제사에서도 바깥에서 먼저 기록되었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



성막도 하나님께 행한대로 짓게 하라. 둘째 첫 연막에 따라지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 모든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인들에게 받은 것으로, 즉 세상에서 얻은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노력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우리가 드

리는 애굽도 사역도 세상에서 얻은 것을 주님을 위해 주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주의 생각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교회에 밀려들어서 얻은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단 증경회장 장동훈 목사(은혜와자비교회)의 기도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독교 순교자기념관 담당 목사로부터 센터의 연혁에 대해 듣고 관람했다.

이날 6조를 맞아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목회자로서 각오를 다지며 복음전파에 힘쓰자고 했다.

모든 일정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치고 마무리로 저녁 식사까지 함께한 후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민음의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될 것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6월 30일(목) 충성교회(김민 박순용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주제를 영광드리며, 나라와 세대로 대령과 교단과 지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지교회원들은 장미철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참석해 서로의 인부를 묻고 화합과 전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정길 목사(성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일교회 압기소 목사의 기도와 지교회장 박순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사 7:15-18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의 리더십과 지도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사회, 국가나 기업에 지도자의 생각과 리더십에 따라 이

런다고 힘든 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교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드온은 민음의 리더십(사 7:15)으로 믿음의 바탕 위에 민음의 행위를 버리게 했다고(사 7:16,17). 연합된 목표를 지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그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대한 나라로 성장시켰다. 우리도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서 목회에 전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어 박희룡 목사의 헌당기도 후, 하나님의 의와 복음전파와 4년 동안 중직되었던 유격환 전 중에 있는 용사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고 증경회장 이정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지교회장은 지교회장의 사회로 8월 수양회와 월례회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 한우국 밖으로 오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월하도: ID mok677 PW 5277
- E-mail: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 전념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종일 목사)는 지난 7월 12일(토) 밝은빛교회(김남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강신홍 목사의 찬양인도에서 이어 지교회 총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12편찬 목사의 기도와 정경장 목사의 성경본독 그리고 사모 조원단 찬송 후 이종장지방회회장 최병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요 7:37-39 말씀을 본문으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애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강이 발원해 하여 동산을 적시고 각종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게 하였으며, 겔 47 말씀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접점 자물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과실과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의 원천은 바로 성소에서 나왔다. 또한 겔 22 말씀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 강 좌우에 생과 나무가 열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과 어린왕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다"며 "본문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했는데, 그본은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의 심을 강조하며,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목회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교회를 위해,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총무 목사의 기도 인도와 광고 후에 김남수 목사의 헌금 및 회장 박종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교회장 박종일 목사의 인도로 7월 월례회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밝은빛교회에서 준비한 오전을 나눈 후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매일복합성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콜라보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이로신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르몬,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면역력 증가

6)갈락: 홍화씨의 2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충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년초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제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괴, 암, 유방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썰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 신 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정 기 영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각종 장 학 예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약로35번길 14
- T E L: 05108-3927
- F A X: 05168-0898
- e-mail: jshs3927@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각종 장 학 예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길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387-3004
- F A X: 04357-3171
- e-mail: changnam@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각종 장 학 예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원로 372-25
- T E L: 062052-7004
- F A X: 0620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 학 예: 한교장 장 학, 이사장 장 학, 지방회 장 학,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 학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작대로 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r@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www.thesancheong.com

“산청한방가족호텔로 크리스찬 성도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호텔은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약
노화엑스포(2023.9.15-10.19 개최 예정)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산청 유일의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5만평의 허준 동의보감 테마파크를 통해서 산, 숲, 계
곡 그리고 무릉과 출렁다리와 다양한 산청의 전통한방, 명상 및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체험과 약선 음식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호텔은 108실의 다양한 객실
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다양한 규모의 모
임을 주관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연회장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
니다.

이런 쾌적한 시설속에서 크리스찬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호텔 설립이후부터 다양한
기독교 행사 모임을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성
도님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문의 055)972-7000 김성현 총괄이사 010-8388-6948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이용시 생치나 산청IC 하차 후 10분내 도착

숙취해소의 새 기준 간:쉽

간:쉽,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
- ✓ 간의 휴식이 필요하신 분
- ✓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 ✓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
- ✓ 스트레스가 많은 분



Q. 왜 코뮌옥돌나물인가?



1. 세계 최초 특허 보호 작물
2. 산청에서 최초로 육종 성공
3. 독성이 없는 천연소재
4. 면역력 증진 소재

숙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Q. 숙편한 발효효소 속엔짱이 뭐예요?

속엔짱은 국산 메밀과 국산 콩을 장 유익균으로
순수배양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다량함유한 새로운 개념의
신바이오틱스 발효식품입니다.

숙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배변을 원하시는 분
- ✓ 혈액순환이 안되시는 분
- ✓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항상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 ✓ 화창함기름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

건강한 다이어트엔 속엔짱슬림

Q.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속엔짱슬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 변비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 요요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상담 및 구입 문의: 산청한방가족호텔 055-972-7000 총괄이사 한명점 목사 010-4564-9191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계 입장 전달

한국교회연합, 권성동 원내대표와 간담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집 목사)이 지난 7월 6일(수) 서울 관악로 달빛교회에서 국민교회 권성동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16일(토) 서울중앙에서 예정되어 있는 동성애 쿼터제에 대해 신우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영남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별금지법과 '영남법'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독교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공화정을 국민교회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을 두고 한발안으로, "국회가 법에 따라 제정 법률 안에 대해 공화정을 개최하는 목적이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절차까지 무시함으로써 국민 여론도 외면하고 법적 효력도 결여했다"는 입장이다.

6면에서 이어짐

지난 정부의 이러한 대치는 '국민이 먼저'라고 한 정부 시기에 모순된 반(反)인권의 행태이다. 사회 포괄적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인재발굴'이라 규정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하여 포괄 공무원의 이들은 '하루 아침에 남편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처한 고충이 어떤 것인지'이며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이 씨의 사정 사건 관련 '아내'와 '자녀'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르는 것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교적인 포괄 우주의 상처와 정서를 깊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공무원 포괄 사건"에 대해 반박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했다. 이 씨가 "죄송하다"고 한 민주당 실용주의의 발언은 공공부처의 장제의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7. 지난 정부가 정부 기밀로 봉인, 은폐 조치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는 진실을 위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정보원과 민정수석실이 권력부와 대경이었던 지지를 내세웠지만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그가 생존한 3년간 동안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가 기밀의 해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사실당시 문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탄을 작중하여 생명을 조를 요청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북한과의 관계가 무뎠을 줄까봐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실종 공무원 이들이 어쨌든을 호소했다면 "자정 정치가"더니 바로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발명의 공개 결정이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는가?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때는 "전장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경정·목·감·사·인·국·적·조·사·목·주·위·사·항·의·까·지·수·백·여·원·을·들·어·왔·다·나·수·사·조·사·를·발·견·하·는·사·실·상·정·자·적·적·적·의·어·지·조·사·였·다·그·리·고·도·"유·족·들·이·원·하·는·행·태·로·전·장·규·명·이·안·돼·안·타·간·다"고·했·다·그·랬·던·자·들·이·북·한·과·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완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이대준 씨 유족의 눈물로 뛰고 다닌가 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려는 것인가?

8.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요청으로 기록물은 열람되어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복속 수사가 아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모아지고 진실을 조작, 은폐하는지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가? 기록물 열람을 통해 명예회복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 사건 자료는 국외 3명의 2 이상 전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전장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채로 지고 어쨌든 열람하러 가지 않는데 사건이 민생 현안이 아니라 전장 규명을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은 앞으로 국외의 큰 실수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당리당리 이념과 유족의 눈물로 뛰어나고 어쨌든을 뛰어넘어야 한다. 유석열 새정부 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진도를 밟고 우선적으로 이대준 씨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9. 군, 해경, 경찰, 검찰의 장제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범죄자의 영역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제도의 탓이 크다. 원상 원전 제정적 조작 사건도 대통령 헌법에 대한 불신과 원전 부 장관이 평등하여 수사권공사를 안배함으로써 경찰이 조작되었다. 이번 해안수사부 공무원 실종 사건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해석한 것이다. 지난 6월 20일 블라디미르 해안청장 개시문에 다음 글이 올라왔다. "본 장이 무엇이고 일복이든 어떤 수사기관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통령 발한 헌법에 수사 결과 바뀌는 것이 관련 정정적 조치가 우선된다" 이 글은 각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죄책을 드러내고 청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해경, 경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4일
실용을 공부는 나쁜 행동

선교 열정과 사명 다시 불러일으켜야

세기총 선교대회 10월 4일-18일까지... 기념예배 및 평화통일기도회 개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이하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4일(토)부터 18일(토)까지 2주간 서울과 무주, 기독교성지 등 국내외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VIP홀에서 대회장 신화석 목사(대회장)를 비롯해 중경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준비위원장), 김동근 장로(공동준비위원장), 시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장과 판권을 시작으로 성지순례와 세미나, 기념예배 및 평화통일기도회 등 국내외 2주간의 일정이 시작되고 밝혔다.

오로지 협동 일(사도행전 6:4)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기총 1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는 세기총 임원 및 후원 회원들을 비롯해 해외 70여 개 교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 예정이다.

세기총 대표회장이며 대회장인 신화석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에 10여개국 한국 디아스포라 교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계 지도자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세계선교에 대한 현 주와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인 중경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적 선교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복의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한국교회 선교 100년의 역사를 성전으로 한국교회의 흥은 믿음으로 오로지 시작됐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한국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 오기 시작했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믿음의 혼란이 되고 있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한국교회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다"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기총 10주년을 맞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과 사명,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세기총이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로 아홉 주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지 10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국내 연합사업은 물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복음 전파 사업,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운동 사업, 다문화 가정집금 사업, 해외동포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기총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고 그동안 지속해온 사업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 100여개국 지교회로 확장해 전 세계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원인으로 삼고 있다.

세기총은 또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 '세기

총의 정령장인 재학인 및 장제적 확립 '세기총 1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계획 마련 '전 세계 100여개국 지교회 설립으로 인한 한국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세기총의 국내 임원 및 회원들을 비롯해 미주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유원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들과 세기총 국외 100여개 지교회장·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교역: 박우근 목사, 장석진 목사, 김요셉 목사, 고시영 목사, 장서영 목사, 최나진 목사, 조일배 목사, 신명종 목사, 박희소 목사 △창립대회장: 장종현 목사 △대회장: 신화석 목사 △준비위원장: 황의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김동근 장로, 김희선 장로 △10주년기념위원회: 고시영 목사 △준비위원: 임원 및 각 지교회 △상임위원장: 각 지교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소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질을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할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당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대)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 하셨다.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전도자를 발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코로나 19로 모든 전도가 쉬고 있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죽은 자의 목숨'과 '미움으로 환경과 싸우며, 한계와 싸우며, 자살과 싸우며' 나아가 복음의 니를 댔다.

지금은 가족세트전도본이 열리고 교회마다 전도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도 교회마다 6월, 27개월 전처럼이다. 일 년 열두 달 전도소가 활짝이다.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 선행으로 사용하시어 가장 선한 일은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런 이름이 있다. 살아있는 한 영혼을 찾아 가는 것이 수의 일이다. 이러한 상으로 영혼 사냥하는 미움으로 코앞으로 전도 현장에 나타난다. 더러워진, 무릎도 아프고 하는 영혼을 잃는 때를 이때다' 하고 기도한다.

'주여, 우리 영혼이 이 아름다운 복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시어 영혼을 지니는 복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교역주사님! 모든 분례를 해설하시어 예수 믿고 천국에 하소서'

이여 영접까지 하라 한다. '자신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행복하고 웃으며 영혼을 마르했다. 담임목사님 열매를 드리고 전도부 박영수 목사의 능력기도 받고, 문밖에 나와서 교회가 없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예수께로!

오늘도 가족세트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가족세트 전도: 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총재

문화선교 TV 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730-2573



